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골드막삭스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해 세미나 "2023년도 미국 경제와 한국/중국 경제 전망"을 가졌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인들. 내년 미국 경제 어둡다", WSJ 설문 결과
- Bloomberg: 미국 비즈니스 활동지수 2020년 이래 거의 가장 낮은 수준

[미국 금융]

- NYT: "내년 주식 전망 잊어라, 향후 10년에 집중하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POLITICO Pro Trade: 현대자동차, "보조금 없으면 조지아 EV 공장 재검토할 수도"
- Bloomberg: 조 맨친 의원, "EV 세액 공제 까다롭게 하라"

[부동산]

- CNBC: 주택 개량 판매 사업 수익, 10년 만에 가장 빨리 하락

[에너지]

- CNBC: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향후 5년 전기 부족 위험성"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기업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감원하는 이유
- CNN Business: 금지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버린 틱톡
- CNBC: 골드만삭스, 내년 1월 직원의 8% 규모 감원 계획
- WSJ: Adobe, 수요 강세로 4분기 매출 10% 증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Americans Pessimistic About Prospects for the Economy in 2023, WSJ Poll Finds

"미국인들. 내년 미국 경제 어둡다", WSJ 설문 결과

- 한마디로 요점은 설문 답변한 미국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 응답자 대부분은 내년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지고, 3분의 1은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설문 결과가 나왔다.
-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설문에 따르면 최근 휘발유값과 인플레이션 둔화 현상을 포함한 최근의 좋은 경제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느끼

는 두려움을 바꿀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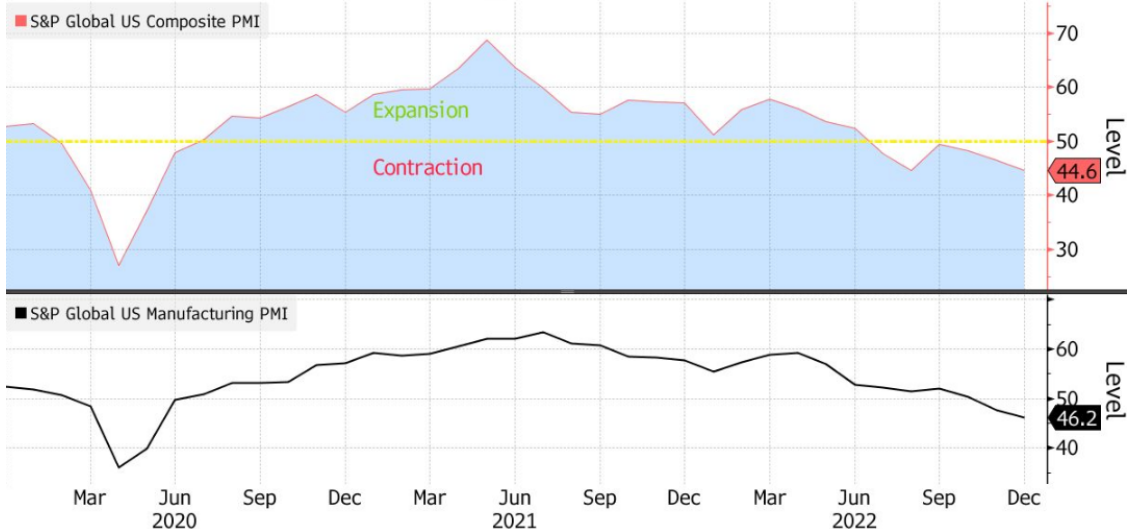
Bloomberg: US Business Activity Contracts, Matching Lowest Level Since 2020

미국 비즈니스 활동지수 2020년 이래 거의 가장 낮은 수준

- 12월 미 비즈니스 활동이 지난 6개월 동안 위축되는 상황이고 2020년 중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과 같은 수준이다. 인플레이 압박은 둔화되면서.
- 12월 The S&P Global 종합 구매자 지수는 1.8포인트 낮아진 44.5로 미끄러졌다. 50 이상은 활동 위축이다. 이 같은 최근 수치는 지난 2009년까지 데이터를 비교하면 가장 나쁜 수준에 들고 있다.
- 급등하는 금리를 동반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는 12월 상품과 서비스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제조 관련 신규 주문도 하락해 지난 2020년 5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서비스 업체들의 신규 비즈니스도 팬데믹 초기 몇 달간 이래 가장 크게 하락했다.

US Business Activity Contracts for Sixth Month

Gauges of services and manufacturing shrank in December as demand waned



Source: S&P Global

Bloomberg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NYT: Forget Stock Predictions for Next Year. Focus on the Next Decade.
“내년 주식 전망 잊어라, 향후 10년에 집중하라”

- 한마디로 내년 주식 전망은 ‘가치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선명해질 것이다.
- 사실 6개월 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많은 전문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주식 매니저들처럼 구체적으로 베팅하지 말라.
- 금융전문가이며 Strategies 저자 Jeff Sommer는 내년 주식 컨센서스는 잘못될 것이라 말한다.
- 그러나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채권은 현재 합리적인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상 전체 주식과 채권 시장을 추적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low-cost index fund)에 투자하라.
- 절대 주식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투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러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다. 그러나 겸손을 유지하고 전체 주식과 채권 시장에 투자하고 수십 년 동안 버틸 수 있다면 번영의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런 예측은 신뢰할 수 있다.

NYT 기사

[인플레 감축법(IRA)]

POLITICO Pro Trade: Hyundai could rethink EV plant in Georgia without tax credit fix

현대자동차, “보조금 없으면 조지아 EV 공장 재검토할 수도”

-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이 시정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면 55억 4천억불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Robert Hood 현대차 대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15일 워싱턴에 있는 싱크 탱크 월슨 센터가 ‘전기차와 녹색 교통, 한-미 파트너십’을 제목으로 연 화상 포럼에서 “현대차가 (조지아주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크게 축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Hood 부사장은 10월에 기공식을 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주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고용이나 생산량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공장이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연말까지 미국 재무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규칙에 보완 대책을 담아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POLITICO Pro Trade 기사

Bloomberg: Joe Manchin Meant to Make Electric Car Tax Credits Hard to Get

조 맨친 의원, “EV 세액 공제 까다롭게 하라”

- 최근 한국 정부와 현대 자동차, Rivian 자동차사는 인플레이 감축법의 시행령을 이달 말에 발표하게 되는 연방 재무부의 재닛 장관에게 리스 자동차의 경우 상업용 차량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렌트카와 우버와 같이 공유하는 차량에도 이같이 혜택을 달라는 것. 상업용 차량은 외국산도 세제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조 맨친 의원은 재무부 장관에 보낸 서신에서 “그 같은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이 북미 투자를 하지 않고 대신에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BC: Home flipping profits drop at the fastest pace in over a decade 주택 개량 판매 사업 수익, 10년 만에 가장 빨리 하락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택 판매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 이유는 올해 3분기에 전체 주택 개량 판매 수익은 2분기에 비해 18.4% 줄어 들었다.
- 올해 3분기 전체 주택 판매의 7.0%가 주택 개량 판매인데 역사적으로 높은 점유율이다. 그러나 2분기 점유율 8.2%에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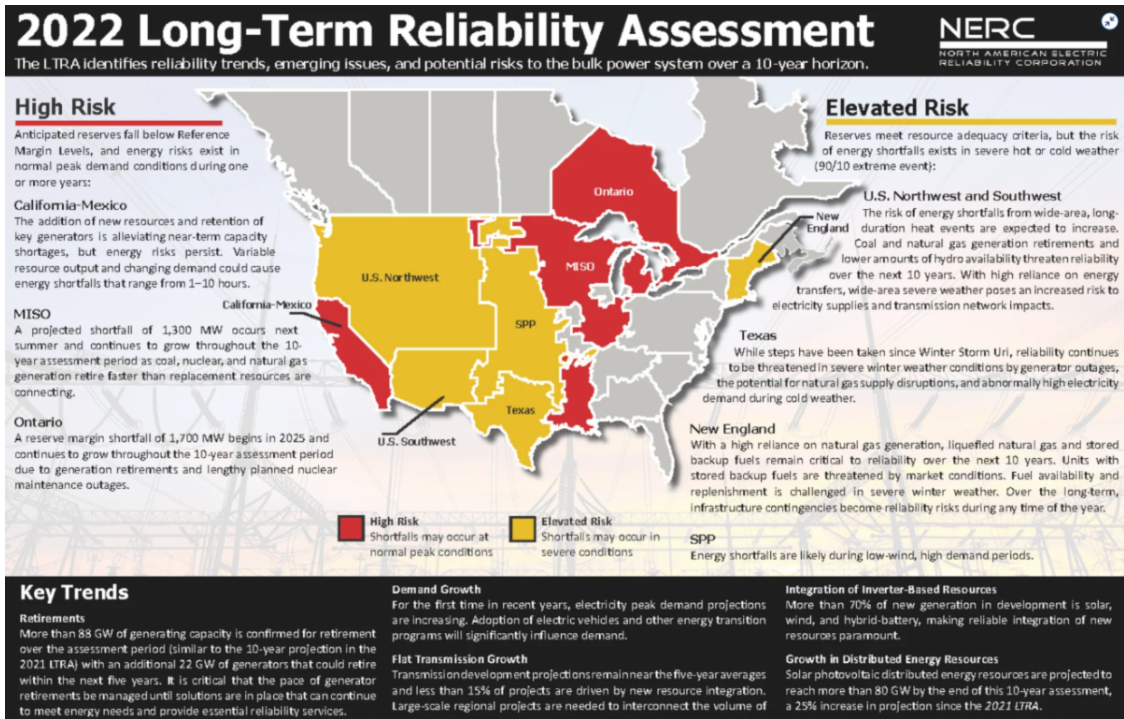
CNBC 기사

[에너지]

CNBC: California and the Midwest face ‘high risk’ of electricity shortages in next five years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향후 5년 전기 부족 위험성”

- 전력망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일부 지역, 중남부 일부 지역이 에너지 부족 리스크가 높다.
- 이처럼 전력망이 도전을 받는 이유는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례없는 변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hy Companies Do Layoffs Around Christmas

기업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감원하는 이유

- 해고에 좋은 시기는 없지만, 유독 추수감사절 또는 크리스마스 직전 시기에 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과 포드, 월마트, 펩시 등이 모두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
-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2월은 2000년 이래 정리해고가 두 번째로 많은 달이며, 가장 많은 달은 1월이다. 명절을 전후로 한 해고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데, 예전과 달리 기업들이 명절에 상관없이 필요로 할 때 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또 소매업과 같은 업종은 10~11월 수요가 많을 때 채용을 늘리고 크리스마스 이후 1월에 감원을 진행한다. 많은 기업들이 12월에 회계 결산을 끝내고 새해 계획을 새로 세우기 때문이기도 하다.

WSJ기사

CNN Business: TikTok might be too big to ban, no matter what lawmakers say

금지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버린 틱톡

-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틱톡의 미국 내 전면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수그러드는 듯했다. 그 사이 틱톡은 작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자 이용자 1억명을 돌파한 미국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 하지만 최근 갑작스럽게 여러 주 정부에서 틱톡 금지를 발표했다. 미성년 사용자에게 대한 부적절한 게시물 노출, 중국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가 다시 화두 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현재 틱톡은 그 안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사용자들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를 금지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이다.
- 따라서 틱톡의 전면적인 금지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이 Z세대를 비롯한 사용자층의 일상에서 틱톡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CNBC: Goldman Sachs is planning to cut up to 8% of its employees in January 골드만삭스, 내년 1월 직원의 8% 규모 감원 계획

- 골드만삭스가 내년의 경제 불황에 대비해 새해 들어 직원의 8%에 달하는 정리해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 4천 명 규모.
- 월가는 지난 2년간의 거래와 고용 호황 이후 올해 낮은 수익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 씨티그룹, 모건 스탠리도 감원을 진행한 상황. 골드만삭스의 이번 조치는 월가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 될 것이다.
- 월가 채용 담당자 Mike Karp에 따르면 자본 시장 환경 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CNBC 기사

WSJ: Adobe Fourth-Quarter Revenues Up 10% as Demand Remains Strong Adobe, 수요 강세로 4분기 매출 10% 증가

- Adobe가 이번 주 목요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강한 수요에 힘입어 10% 증가한 4분기 매출을 발표했다. 이는 월가 분석가들의 예상을 웃돌며 올해 42% 하락한 Adobe 주가가 목요일 5.7% 상승했다.
- 최근 경제 불황 속에 소비자들이 지출에 더 신중해지면서 여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최근 몇 주 동안 Salesforce Inc., Okta Inc. 등의 주식이 모두 하락한 상황이다.

- 한편 Adobe는 지난 9월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 제공 플랫폼인 Figma Inc.를 약 2백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역대급 할인에도 지갑 안열어"...美 쇼핑 대목 덮친 'R의 공포'

블랙프라이데이도 소용없었다
 지난달 美 소매판매 0.6% 감소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침체가 무섭다"

저축률 급락...소비여력 줄어
 소득대비 저축률 17년 만에 최저
 소비 움츠러들자 생산도 위축
 제조업지수, 전망치 크게 밑돌아

미국 공기업 직원인 마커스 맥닐(32)은 지난달 블랙프라이데이 때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매년 자신이나 아내를 위해 옷을 샀지만 올해는 꼭 참았다. 크리스마스에 두 살배기 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다. 맥닐은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올해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주기 위해 11월에 돈을 쓰지 않고 일을 더 했다”고 말했다.

11월 넷째주 금요일인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이다. 하지만 올해는 고물가 속에 지갑을 닫은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소비 감소는 생산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